

치과의사·환자 싸고 보험금 사기, 경찰 수사 막바지

특약제도 악용, 치조골 이식 횡수 조작해 역대 보험금 타내 의료진 4명·환자 16명 불구속 송치...병원 3곳 추가 수사 중

광주경찰이 치과 의사와 환자가 싸고 보험금을 가로챈 사건과 관련해 막바지 수사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병원 3곳 의료진 4명과 환자 16명이 검찰로 넘겨졌으며, 수사 선상에 오른 다른 병원에도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치조골(치아 뿌리가 박힌 턱뼈 연결) 이식 수술 횡수를 일부러 여러 차례 나누는 수법으로 보험금 사기를 도운 치과병원 8곳 의료진 10명과 부정 수령 환자 144명을 입건, 수사를 벌

였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았다.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의사 9명·치위생사 1명 등 의료진은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치과병원 원장들은 지난 2013년 1월 18일부터 지난해 7월 26일까지 치조골 이식 수술을 수 일에 걸쳐 한 것처럼 진단서·진료기록부를 꾸며 환자들이 생명보험 특약 규정(수술 2종)이 정한 수술 횡수에 따른 보험금을 추가로 타낼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환자 144명은 이식 수술 횡수에 따라 보험사 4곳으로부터 보험금 7억 4000만 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치과 의료진은 치아 임플란트 수술에 앞서 치조골 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생명보험 가입자라면 특약에 따라 이식 횡수를 여러 차례 나누면 보험금을 더 타낼 수 있다'고 넌지시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진 안내에 따라 실제 이식 수술은 보통 하루이틀 사이에 마무리됐으나, 의료진

이 허위로 꾸민 의료기록을 제출받은 보험사들은 특약 규정에 따른 추가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 1명이 원래 보장 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도 50만 원~260만 원 가량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의료진은 이 같은 수법으로 환자를 적극 유치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설명했다. 실제 병원들은 '비용 부담을 줄여준다' 등의 입소문을 탔으며, 일부 환자들은 미리 알고서 해당 병원을 찾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과정에서 의료진과 환자들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또 수술 특약 보험금 부정 수령 안내 여부 등 일부 진술은 엇갈렸다.

경찰은 진료비 납부 내역, 엑스레이

(X-Ray) 촬영 기록 등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한 병원 3곳의 의료진 4명·환자 16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또 치과병원 3곳 의사 4명, 보험금 부정 수령 환자 55명에 대해서도 입건, 조만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반면 확보된 증거가 충분치 않아 병원 2곳의 의사 2명, 환자 48명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치과 의료진이 환자 유치 목적으로 보험 특약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렸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불송치 결정을 제외하면 병원 6곳에서 의료진 8명과 환자 71명이 보험금 4억 7500만여 원을 부정 수령했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실전과 같아 보이는 VR 사격훈련 코로나19로 중단 및 축소되었던 예비군 훈련이 4년 만에 정상 시행된 28일 전북 남원시 남원예비군훈련장에서 한 예비군이 VR 모의 사격훈련을 하고 있다.

경찰, '우크라이나 참전' 이근 유튜버 폭행 혐의 입건

법정 복도에서 얼굴 때리고 욕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전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대위가 첫 재판관을 마치고 나오면서 유튜버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주 이 전 대위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 전 대위는 지난 20일 재판 종료 후 법정 복도에서 유튜버 구제역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구제역은 이 전 대위를 따라가며 채권·채무관계 관련 질문을 던졌고, 이 전 대위는 "X가 X신아"라며 구제역의 얼굴을 한 대 때렸다.

구제역은 법원 청사를 나와서도 이 전 대위

를 향해 '저를 폭행하신 건 어떻게 생각하냐'는 물음을 이어갔다.

이에 이 전 대위는 욕설을 하며 자신을 촬영 중인 구제역의 휴대전화를 손으로 쳐서 땅에 떨어뜨렸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소환 일정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추가 소환 조사 방침

경찰이 프로포폴과 코카인 등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임홍식·37)씨를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전날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씨를 불러 조사한 뒤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유씨는 전날 오전 9시20분경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약 12시간 만에 귀가했다.

다만 경찰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내용은 많은데 전날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유씨 측과 천천히 소환 조사 일정을 잡을 생각"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친 뒤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판단할 예정이다.

유씨는 전날 "불미스러운 일로 (목소리 떨림) 이런 자리에 서서 그동안 저를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께 큰 실망 드리게 된 점 깊이 반성한다. 죄송하다"고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일탈 행위들이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식의 자기 합리화 속에서 그런 잘못된 눈에 빠져있었던 것 같다"며 "입장 표명이 늦어진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씨는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과 대마, 코카인, 케타민 등 4종류의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유씨의 상습 프로포폴 투약 의



혹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진행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씨가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정황이 있다며 수사를 의뢰했던 것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총 73회에 걸쳐 4400ml 이상의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유씨가 지난 해까지 총 100회 이상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하는 유씨의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간이 소변 검사를 진행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검정을 요청했다.

같은 날 경찰은 유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피의자 신분으로 동행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유씨의 모발도 확보한 뒤 국과수에 감정 의뢰했다.

그런데 감정 결과 유씨가 프로포폴 외에도 다른 마약류를 투약했을 정황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씨는 대마 양성 반응을 보였고, 코카인과 케타민 투약 정황도 드러났다.

이슬비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